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식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발행인 : 이석하, 편집인 : 김학진

면 집 : 대외협력 · 홍보위원회

(김명수 · 여활령 · 조철훈 · 인동환 · 신찬석 · 김기석 · 윤리연)

나용인여사 기부자의 벽 현판식 행사 개최



2019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본관 2층에서 기부자의 벽 현판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현판식의 주인공은 나용인 여사로, 당신께서는 2019년 2월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특히 나용인 여사께서는 평소 청소년 용역 등으로 힘들고 어렵게 모은 귀중한 돈을 대학에 기부하여 주변인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기부자의 벽 현판식 행사는 나용인 여사님께 대학차원의 감사를 표하고 여

사님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기부자들의 이름을 2층 로비 한쪽 벽에 새겨 대학에 기부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 현판식에서 당신의 성함이 새겨진 명판을 직접 벽 한곳에 채워넣으시는 나용인 여사님은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정중한 모습으로 쾌활하게 행사에 참석하였다. 나용인 여사는 "저는 이북에서 내려와서 비록 배우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모은 돈을 통해 학생들이라도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깊은 뜻을 전했다. 나용인 여사께서 출연한 기부금은 내년부터 바이오시스템공학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가는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4기 농업생명과학 청소년 캠프 개최



제4기 농업생명과학대학 청소년 캠프가 2020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관악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집된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 및 실험을 체험하였다.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본 캠프는 고등학생들의 농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돋굴 수 있도록 실험 및 특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돼지의 난자 채취와 인공수정 및 돼지 줄기세포(이창규 교수)', '생명체의 에너지 대사 - 광합성과 호흡(허진희 교수)' 등 4가지 실험학습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의 미래, 효소(장판식 교수)' 등 3가지 특강을 수강하였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의 멘토 참여로 체험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멘토-멘티간 교류활동으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보조할 수 있었다. 멘토로 참여한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이승엽 학생은 '고등학생들에게 농업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뿌듯했다.'고 말을 남겼다.

캠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든 실험, 멘토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 등 본 캠프를 통해 얻은 값진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4.82점/5점). 특히 모든 실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2점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 캠프의 높은 효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본캠프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 등과 같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6~8면_Interview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10면_농기자가 간다

11면_기금출연 소식

12면_농생대 사람들

송영훈 교수, 응용생물화학부 부임



송영훈 교수가 2020년 3월부터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부교수로 부임하였다. 송영훈 교수는 경상대학교에서 학부 및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뒤 경상대와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쳤다. 이후 아주대에서 6년간 교수로 재직하였다. 송영훈 교수의 전공은 식물분자생물학이다.

“응용생명화학전공 식물분자생물학 분야에 임용된 송영훈입니다. 먼저 국내 최고의 연구 및 교육 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향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공 및 단과대학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빛낼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물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훌륭한 후학 배출이 서울대 교원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모델식물인 애기장대에서 광주기 인식 및 생체시계 기능에 의해 조절되는 개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작물들로 확대하여 식량 생산 증대에 기여하는 하고 싶은 연구와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연구를 잘 아우르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만이 아닌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수하고 자신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및 농생대 발전을 위해 저에게 맡겨진 어떠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연구가 가능한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故 한인규 명예교수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19년 12월 17일 본교 故 한인규 명예교수를 '2019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

故 한인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는 축산학 및 사료학 분야의 교육연구와 우리나라 축산업 근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동물영양학자이다. 한인규 명예교수는 한국사료성분표 및 사양기준 제정, 친환경·기능성 사료자원 개발로 동물 사료자원을 확보를 통한 사료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평생에 걸쳐 발표한 670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 동물영양학 및 사료공학을 창시하였고, 이를 축산 현장에 접목하여 대한민국 동물산업의 근대화를 주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한국축산학회 회장, 한국영양학회 회장, 한국영양사료학회 회장, 세계축산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외 축산학계의 중추로 활동하였다.

양태진 교수,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근정포장 수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양태진 교수는 11월 11일 제 22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와 산업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년 우수한 농업 분야 연구와 산업실적에 대해 엄정한 외부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며 2019년에는 5월부터 많은 심사대상자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각 1명에게 근정포장과 산업포장이 수여되었으며 20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상이 부여되었다. 양태진 교수의 수상대상 연구는 '고려인삼 유전체해독 및 인삼의 분자유종 실용화기술 개발'이다. 양태진 교수는 지난 3년(2016-2018년)간 80편 이상의 국제저

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2018년 인삼의 유전체해독 완료 논문이 Plant Biotechnology Journal의 표지 모델로 게재되어 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또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인삼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 10건, 기술이전 3건 등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대상 최고의 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태진 교수는 연구하기 난해한 인삼을 대상으로 이런 성과를 만든 것에 대해 매우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털어놓았다. 고려인삼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추국이고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똑같은 고려인삼을 Chinese Ginseng이라고 부르며 많은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삼중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다짐은 물론 인삼의 생명공학 연구와 인삼의 우수 품종육종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용화기술개발 연구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더불어 백수오와 방풍 등 우리나라 고유의 자원식물을 개발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큰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하였다.

2019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및 학술상 시상식

지난 2019년 11월 12일 오전, 호암교수회관에서 제 27회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및 제 19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은 농업생명과학 및 대학 발전에 공헌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1991년 故 한인규 명예교수의 출연금을 통해 제정되었다. 시상식이 있었던 11월 초에 고 한인규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이 있었음에 따라 시상식은 더욱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시상식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이석하 교수의 축하인사에 이어서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및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선정위원회 위원장 이우신 교수의 수상자 선정경과 및 수상자 약력 보고가 있었으며, 이후 시상과 수상소감,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최고의 영예인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은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 전공의 이학래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학래 교수는 제지과학의 윌앤드화학과 코팅분야에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았으며, 컨티벨트건조기술, 도공용라텍스의 고기능화, 도공층의 구조화 연구, 제지공정의 용수저감기술, 제지용 케미컬의 개발 및 응용기술 등 제지분야의 기초 및 산학 협력 성과를 이룩하였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농업생명과학대학교 학장,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며 학생복지와 학내 연구문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학래 교수는 한인규 교수에 대한 추모와 함께,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학내에 관심을 돌려 학내의 유능한 교수들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학술상은 두 명의 수상자를 가졌다. 첫번째 수상자인 농경제사회학부의 김의준 교수는 지역 경제성장과 분배, 지역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하며 지역정보전공의 공간경제연구실 대학원생과 함께 국내외 학술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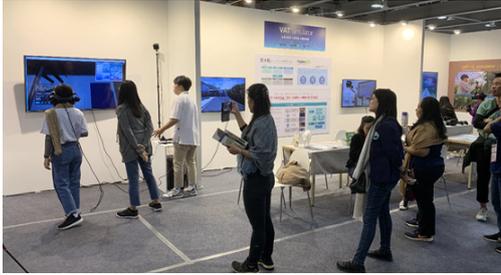


[시상식 기념촬영. 아랫줄 왼쪽부터 정종훈 교수 내외, 이학래 교수 내외, 김의준 교수가 자리하였다.]

179편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20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BK21 범국가 및 지역분석전문가 양성사업팀, BK21 플러스 지역계량분석전문인력 사업팀, SSK지원사업 등에도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김의준 교수는 도움을 주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사회의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사회의 올바른 인재로 양성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한 명의 학술상 수상자인 정종훈 교수는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로 부임 후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왔다. 지난 15년간 생체역학 및 조직공학 연구실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국내외 논문, 특히, 연구보고서로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종훈 교수는 그동안 생체 역학 및 조직 공학 분야에서 생체정보 분석 및 생물소재, 농축산부산물, 나노소재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연구해오며 바이오산업과 축산식품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종훈 교수는 연구실의 대학원생들과 가족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자세를 갖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기·시설환경&에너지공학 연구실 국제농업박람회 참석



서울대학교 이인복 교수 실험실은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돈사 및 온실 VR 체험 시뮬레이터를 전시하였다. 농업시설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상품을 위해서는 내부 환경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설 내부의 공기질, 환경 조절은 환기에 의하여 제어되지만, 바람이나 온도, 습도, 가스와 같은 환경 인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들이 처음에 온실이나 축사를 접했을 때 직접 체험해보고 내부 환경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진은 가상현실을 통하여 농가에 직접 들어가보고 계절, 환기구조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개발하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연을 하였다. ICT 스마트 온실/축사 가상현실은 가상공간 내에서 돼지들이 살아움직이고, 온실환경을 현실감 있게 재현하여 공기 에 의한 질병 관리 및 적정 생육환경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CFB)는 지난 11월 1일 본교 203동 101호에서 『Engineering Innovations for Food Processing and Materials』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Sudhir K. Sastry 교수 (The Ohio State University, USA) 등 국내외 8명의 석학을 초빙하여 식품의 보존과 기능성 증진을 위한 첨단 식품공정과 식품소재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최근 국내·외 연구동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광양시 교육청과의 업무협력협약식 개최



2019년 11월 25일 우리 대학은 광양시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CALS 진로캠프, 미래 농업업분야 인력 양성, 시설물 공유 등 서울대학교와 광양시에 속한 학생들의 교육지원활동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은 기존에도 산림 탐사 프로그램, 산림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체결식에 참석한 광양 교육지원청 조장자 교육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요청한다”고 말을 남겼다.

아시아개발은행,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워크숍 개최



2019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후원 하에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간의 공동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농업 밸류체인과 Global High-tech Agricultural Network(GHAN)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뿐만아니라 필리핀 및 네덜란드대사관, 세계은행, WFP, AfDB, FAO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여 오늘날의 농업밸류체인 및 GHAN의 컨셉, 향후 계획, 운영구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누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김창길 초빙교수는 농업은 95%의 첨단기술과 5%의 노력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GHAN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을 남겼다.

ADB는 향후 한국 및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아시아 권역별로 GHAN을 구축하여 농업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AI, Robot, ICT 등과 같은 첨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2019 CALS 외국인 초청의 밤



2019년 12월 5일 서울대학교 글로벌 교육센터 식당에서 2019 CALS 외국인 초청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외국인 초청의 밤 행사는 농생대 소속 외국인 구성원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친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2월 개최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는 7인의 교수, 62인의 학생, 18인의 연구원을 포함하여 87인의 외국인이 있다.

이번 행사는 김홍석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외국인 교수 및 학생들의 한국생활 경험담 소개가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순간을 기록한 사진을 상영하며 한국과 서울대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갔다. 이후 식사 및 간담회 그리고 한국 전통놀이(투호, 제기차기)체험이 이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농식품경영 최고위과정 수료식 소식 및 발전기금 출연



2019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농식품경영유통 최고위과정(AAMP)의 8기 교육생이 수료하였다. 농식품경영유통 최고위과정은 농식품분야 CEO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정책 및 전략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특히 경영 및 유통학에 대해 주제별로 모듈화된 강의를 제공하고, 국내·외 선진농업 견학, Case Study 등을 통해 교육생들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지난 8기 과정에서는 해외연수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해외농업개발지역 일대를 탐방한 바 있다.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의 지도아래 지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8기 과정에서는 27명의 농식품 분야 CEO들이 수료하였고, 이로써 최고위과정은 8년간 20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농식품경영최고위과정은 과정 운영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으로 매년 농생대 발전기금 5백만원을 출연하는 등 대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식품경영최고위과정 9기 과정은 2020년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농과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2020년 1월 2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방글라데시 농과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방글라데시 농과대학은 방글라데시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으로, 방글라데시 지역 농업 발전을 견인해왔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GHAN(Global High-tech Agriculture and research Network)의 남아시아 지역허브로서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농민들에게 선진 농업기술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교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상호간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나가고, 농업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방글라데시 농과대학은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서울대학교 및 국내의 농업기관을 방문하여 국내의 선진 농업기술 및 인프라를 견학하였다.

언맨드솔루션, 위고코리아와의 산학협력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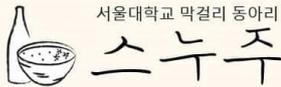
2020년 2월 27일 우리 대학은 (주)언맨드솔루션 및 위고코리아(주)와의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주)언맨드솔루션은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보유한 차세대 자율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회사로 많은 연구와 개발로 다수의 해외 국가에 선진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위고코리아는 제어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공학교육 및 연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자율주행플랫폼, 드론, 다관절-로봇팔과 같이 다양한 매니플레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해 나가도록 공학 교육 및 연구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언맨드솔루션, 위고코리아는 산학협력을 통해 상호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스마트팜 분야를 위한 연구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 자율주행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것으로 기대된다. 체결식에 참석한 언맨드솔루션 문화창 대표이사는 '농업분야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할 방향이 많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분야 자율주행 연구가 더욱 진흥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협약 체결식 이후에는 언맨드 솔루션의 교육-연구용 자율주행 플랫폼 기증식이 이어졌다. 3,000만원에 판매중인 해당 모델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기증되어, 향후 본교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함께 빚어낸 전통, 막걸리에 담아낸다

- 응용생명화학부 발효과학동아리 '스누주'



‘막걸리 한 병 주세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친숙한 막걸리는 소주와 함께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전통주이다. 막걸리는 소주보다 알코올 성분이 적고 깔끔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양조과정까지 비교적 간단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농생대에는 2000년대까지 학과 별로 이런 친근한 인상을 주는 막걸리를 빚으며 구성원간 친목을 다지는 전통이 있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전통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동아리가 있다. 바로 응용생명화학전공 김정환 교수와 해당 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발효과학 동아리 ‘스누주’이다. 농생대의 카페에서 스누주의 응용생명화학전공 16학년 최예진 학우를 만나볼 수 있었다.

최예진 학우는 발효 과학 동아리 스누주의 창립 멤버로, 2018년 4월부터 한학기 가량 활동하였다. 응용생명화학소속 김정환 교수가 발효 과학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고, 2~3 명의 학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동아리를 창립하였다. 동아리 활동은 주로 김정환 교수 연구실 또는 응용생명화학 학부 실험실에서 진행된다. 발효에 관한 원리를 심도있게 배우고, 직접 막걸리를 빚어보는 활동을 한다.

스누주 동아리 활동은 발효의 원리를 체험적으로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류 전문 기업 국순당에서 근무하는 동문 연구원이 진행하는 발효과학 세미나에서 발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최예진 학우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국가 별 사용하는 효모의 차이와 발효 과정 등을 심도있게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쌀을 찐 후 누룩과 물을 넣고 섞어주면 1차적으로 발효가 된다고 설명하며 이후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에서 적절한 온도를 조성해주면 발효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최예진 학우는 이 때 2주의 발효 동안 효모의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2-3일에 한번씩 저어주어야 했던 것을 가장 힘들었던 과정으로 회상하기도 했다. 발효 직후의 알코올

원액을 기호에 맞게 희석을 거침으로써 마침내 직접 빚은 막걸리가 완성된다. 개인 취향에 따라 유자청이나 꿀을 첨가하기도 한다.

최예진 학우는 발효 환경 조건에 따라 발효 결과가 크게 달라졌던 경험을 인상깊은 경험으로 꼽았다. 막걸리 발효가 의외로 까다로운 과정이고, 환경이 잘 맞지 않으면 발효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안된다. 이에 따라 막걸리의 맛이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또한 꾸준히 발효 과정을 관리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우들 간 스케줄 조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답한다. 막걸리를 빚기 위해 쌀을 찌는 과정에서 30분에 한 번씩 물을 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막걸리 10병이 넘는 많은 양으로 제조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앞으로 스누주에서 활동할 후배들에게는 발효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 활동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스누주 동아리를 통해 최예진 학우는 수업에서 배워왔던 지식을 실제로 체험해보면서 전공에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농생대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공부하는 생화학을 수강하며 발효조 내의 미생물의 대사를 더욱 심도있게 짚어볼 수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스누주 동아리원과 함께 직접 빚은 막걸리로 뒷풀이를 진행하면서 친목을 다질 수 있다고 한다.

농생대의 전통을 잇는 발효과학 동아리 스누주는 현재 회장직 포함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있다. 발효 회사를 탐방하고 술지게미를 활용하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새롭게 계획되고 있다. 막걸리를 좋아하고 발효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은 지원해보는게 어떨까. 여러모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순형 (주)파워킹 대표(농업기계 70)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조용한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주)파워킹의 본사에서 기업가이면서 동시에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순형 동문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쓴 수필을 선물로 건네주며 까마득한 후배들의 방문을 반겨주었다. 이번 호에서는 (주)파워킹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순형 동문(농업기계 전공 70)을 만나보았다.

파워킹을 창업하기까지



이순형 동문은 1970년 농대에 입학하여 농업기계를 전공하였다. 학부 졸업 후,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행정학을 공부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바로 동아건설에 입사하였다. 당시 중동의 건설 경기에 따라 사우디로 발령을 받아 일하다가 미국의 한 건설 중장비 회사에 스카우트되기도 할 만큼 능력이

뛰어났다. 하지만 IMF로 인해 경기가 나빠져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당시 창업한 회사가 현재의 (주)파워킹이다. (주)파워킹은 유압 차단기, 암석 스플리터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암석 파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나눔을 실천하는 이순형 동문

이순형 동문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배운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순형 동문은 안양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교정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천주교 신자들과 종교적인 얘기를 나누며 수강자들의 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방황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다. "중장비 기술을 가르쳤던 한 학생이 3개월 만에 중장비 관련 자격증을 4개나 따왔던 적이 있다.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한 이순형 동문은 학생들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수필가로서의 활동

글 쓰는 것에 취미가 있었던 이순형 동문은 글을 전문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수필 나름대로의 여러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수필 강의를 수강한지 10년쯤 되었을 때 등단을 하였다. 무역을 하며 세계 이곳저곳을 누빈 경험을 바탕으로 쓴 <서방견문록>이라는 수필을 과천의 지역신문에 2년간 연재한 것이 그의 첫 수필이다. 현재 2권 정도의 책을 썼고 수필가의 활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글은 주로 비행기에서 작성하고 책을 쓰기 위해 틈틈이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이순형 동문은 기업가의 제일 좋은 덕목이 수익을 잘 내는 것이라면, 수필가로서는 소설이나 시와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순형 동문은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무엇보다 자신의 전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학업에 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농생대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의리도 있고 교류관계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 농생대 학생들만의 훌륭한 점이 충분히 많으니 잘 살려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사회생활은 결국 인적 네트워크이므로 직간접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교류하고 또한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창업한 (주)파워킹을 대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을 비쳤다.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스물여섯번째 주인공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정욱주 교수!

정욱주 교수는 처음부터 조경학 교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다. 학부생 때에는 자신이 기대한 조경학 공부와 실제의 학습 내용이 달라 당황하기도 했었고, 학부를 졸업한 후에는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일반 설계 사무소에 취직하기도 했었다. 일하는 도중, 조경을 더 깊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디자인 스쿨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원하는 만큼 공부를 끝낸 후에는 다시 미국의 한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다. 정욱주 교수는 취직과 연구를 반복하면서 조경학의 매력에 서서히 젖어 들게 된 것이다. 공부를 진행하면 할수록, 조경학 전공이 자신이 적성에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칠 교수를 선발할 때 지원, 합격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정욱주 교수의 세부 연구 분야는 정원연구, 도시 조경연구, 생태 및 디자인 연구, 공원 연구 등이다. 정욱주 교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설계 공모전에 참가자로, 때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현재는 주로 아파트 외부 공간, 도시 계획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주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도서 추천



『정원을 말하다』 (저자 : 로버트 포그 해리슨)

정욱주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포그 해리슨' 교수의 <정원을 말하다>라는 책을 추천했다. 이 책은 인간이 왜 정원에 끌리는지, 인간과 정원의 관계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 시대부터 정원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위안을 주고, 어떻게 인간과 함께 발전해 왔는지를 알려준다. 정욱주 교수는 이 책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일종의 조경학 입문서로, 기술서나 전문 서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욱주 교수는 이 책을 읽고난 후, 정원을 설계하고 꾸미는 자신의 직업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꾸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활동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조언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에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세대 차이와 그에 따른 생각 차이로 빚어질 수 있는 오해를 경계하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돋보였다. 정욱주 교수는 경쟁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두 가지 사항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을 할 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깊이 있는 공부도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더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학생기자단 제13기 주세영, 조육기

<2019. 11. 26. 중앙일보>

전통적인 농업 생산에서 탈피해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 필요



임정빈 교수
(농경제사회학부)

한국농업의 현황과 해결과제로는 농업성장의 정체
가 있다. 농업 GDP도 꾸준히 증가했으나 다른 부문에
비해 성장률이 저조하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GDP 중 2% 이하로 줄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의 감소로 전체 곡물자급률이 21.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농가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져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 농업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요소도 있다.
한국 농업은 앞으로 성장·분배·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통적인 농업생산을 탈피해 농생명 첨단산업 영역 확
대, 첨단 과학기술 융합, 문화 및 관광산업 연계 등 다양한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농정의 대상도 생산자·소비자·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국민의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정의 범위도 생산 중심 접근을 넘어 푸드시스템
관점, 농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포괄해야 한다. 농정의 추진방식도
정부 직접 시장개입은 지양하고 민간이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농산물이나 식품은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되므로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스
위스와 같이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 극대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9.12.18. 농민신문>

레몬나무



이태호 교수
(농경제사회학부)

어렸을 때 들었던 팝송 중에 피터 폴 앤 마리가 부
른 '레몬 트리(Lemon Tree)'란 곡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가사가 인상적이었는데 생각나
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레몬 나무가 예쁘고 꽃향기가 달콤하지만 그 열매
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랑도 이와 같을
수 있으니 함부로 사랑을 믿지 말거라.”

이 가사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경제학에서는 같은
변지르르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을 상품을 '레몬'이라고 이른다. 이러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레몬시장'이라고 한다.

농업경제학에서는 채소·과일처럼 겉모양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 있
는 상품을 '관찰재'라고 한다. 소비해본 다음에야 그 품질을 알 수 있는
상품은 '경험재'다. 소비를 해도 그 품질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저 믿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신뢰재'라고 부른다. 기능성식품

처럼 섭취효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경험재나 신뢰재의 경
우와 비슷하다. 국민이 세금으로 지불하는 직불금의 대가로 농민은 공
익적 가치를 생산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농민이 직불제가 요구하는 의
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농민이 얼마나 공익적 가치
를 창출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세금
을 지불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공익형 직불제는 결국 사라지고 말 것
이다. 반대로 국민이 농민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를 잘 알고 신뢰하게 된
다면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세금을 기꺼이 지불하려 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농민이 공익적 가치창출을 위해 노
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
리고 정부는 이를 잘 취합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정부가 국
민과 농민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의 통로역할을 함으로써 공익형 직불제
가 레몬이 아닌 달콤한 과실이 열리는 나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20. 1. 15. 농민신문>

동물복지기반의 양돈정책 방향



김유웅 교수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양돈업계가 장기불황과 ASF로 이중고를 겪는 가운
데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추
가적인 규제까지 예고돼 국내 양돈산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정부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동물복지는 유럽연합
(EU)에서도 더이상 확산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그럼
에도 우리나라에선 이를 축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18년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복
지정책팀도 신설했다. 덴마크의 동물복지는 자국 돼
지고기가 해외 수출시장에서 다른 나라산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차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덴마크의 양돈산업은 EU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보다 생산성이 높는데, 생산성 일부를 희생해서
라도 덴마크산 돼지고기의 차별적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동물복지형 축산은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스위스 등 극히 일부 나라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

반면 양돈산업의 규모와 수출물량이 큰 독일·스페인·프랑스 같은

농업선진국에선 동물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유럽에서의 동물복지 시행은 '동물복지 돼지
고기가 생산된다면 할증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구입할 의사가 있
다'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 양돈업계가 많은 투자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막상 일반 돼지고기와 동물복지 돼지고기 가격이
30% 정도 차이가 나자 소비자들은 처음에 응답했던 대로 할증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동물복지 돼지고기를 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
반 돼지고기를 구입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의면하는 데다 생산비까지
더 많이 드는 동물복지 돼지고기시장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운명
을 맞게 됐다.

우리 정부가 동물복지형 축산을 장기적·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먼
저 유럽의 동물복지정책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들이 일반 돼지고기보다 다소 높은 할증가격이 불더라도 동물복지 돼지
고기를 구매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농민신문 이현진 기자님을 만나다



농민신문은 1964년 「농협신문」에서 시작하여 1976년 「농민신문」으로 제호를 바꾼 후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내외 농업환경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왔다. 농업 정책, 농산물 유통, 축산, 영농 분야부터 지역 여행,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등의 문화 분야까지를 모두 다

루는 농민신문은 농업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비판, 농산물 시세 분석 등을 통해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농민들과 도시민들 모두에게 농촌을 홍보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농민신문의 문화부 이현진(농경제 05)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농민신문 기자를 직업으로 택하게 된 계기와 기억에 남는 기사들

이현진 기자는 2005년 농경제사회학부에 입학하여 졸업 후 농민신문에 입사, 현재는 문화부 소속의 5년차 기자이다. 농경제학과 출신으로 평소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시골 정서를 좋아한다는 이 기자는 문화부에서 여러 가지 기획 기사를 통해 농민들과 도시민들 모두에게 농촌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술인 '제주'를 주제로 기사를 기획 중인 그는 실제로 직접 술을 빚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시골의 맛집을 소개하는 '토박이 맛집',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는 '촌(村)스러운 걷기 여행', 소규모 책방 소개 등의 기사를 기획했었다고 한다. '토박이 맛집'은 경기도부터 경북 영주, 강원도 평창, 전남 목포 등 말 그대로 전국 단위의 맛집을 소개하고 있으니, 기사 하나 하나에 들인 시간과 열정을 짐작할 만하다. 특히 이 기자는 여러 기획기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로 '촌(村)스러운 걷기 여행'을 꼽으며, 직접 걸으며 여행을 하면서 기사의 내용을 구상했기 때문에 걸어서 볼 수 있는 국내의 여행지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어떤 사람에게 농민신문 혹은 기자라는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내향적인 사람이더라도 어떤 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울리는 직업”

기본적으로 기자라는 직업은 현장성이 강하다. 특히 농민신문은 다른 신문사들처럼 경찰서나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이 나가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 나가 농민들을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생산해내는 과정은 결국 글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잘 맞겠지만, 최소한 거부감만 없어도 괜찮다. 이현진 기자는 한 마디로 무엇에 대해서든 호기심이 많고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도전해보면 좋을 직업이라며 기자를 꿈꾸는 농생대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 학생기자단 제9기 허지영, 제11기 나소진

CALS Foundation 기금출연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39,906,109,906원

기금출연 (2019. 09. 01. ~ 2020. 02. 29.)

당기 누적금액 : 3,939,079,091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윤대섭(농공학 4)	1,804,800,000	임영외(농업교육과 7)	6,000,000	㈜평한농	2,000,000	윤철희(농생명공학부 교수)	600,000	박준호(산림과학부 02)	120,000
윤태현(농공학 4)	1,261,690,000	농업지원경제학전공 교수 일동	5,360,000	Hong Sok(Brian) Kim(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00,000	송인홍(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600,000	이인복(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83,330
윤수현(농공학 4)	318,790,000	㈜프로캘코리아	5,000,000	이동근(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000,000	양대진(식물생산과학부 교수)	600,000	강문성(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83,330
박연진(문대섭 家)	197,560,000	농식품8기	5,000,000	㈜한성티앤아이	2,000,000	최원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600,000	손창은(학술림)	60,000
한국로지스폴(주)서병륜	50,000,000	서울신문사	5,000,000	강규영	1,500,000	정봉진(농학과 73)	500,000	하기호(학술림)	60,000
삼연고농경제사회학부 명예교수	30,000,000	하성기	5,000,000	모던엠디(에스씨)	1,000,000	양윤선(농생대 식물병원)	500,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2,138,366	유상열(농생명공학부 교수)	5,000,000	박언식	1,000,000	신승현(농생대 식물병원)	500,000		
(재)카카오에그푸러니문화재단	22,000,000	㈜누보	5,000,000	정중훈(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000,000	김준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99,980		
원예학과	20,000,000	조동술	4,800,000	최진용(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000,000	손영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499,98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00,000	㈜케이디스	4,500,000	정두철	1,000,000	한경석	400,000		
에스피씨(주)	19,140,000	(주)엘씨에스 바이오텍	4,310,000	박언식(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김상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20,00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16,597,455	류관희(명예교수)	4,000,000	나용준(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강상호(학술림)	300,000		
(주)에니원	12,000,000	조경학과 84학번 동창회	4,000,000	이경준(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우제성(산업인력개발학 05)	300,000		
차상석	10,000,000	고미경	3,500,000	차상석(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나승일(농산업교육과 교수)	300,000		
문바이오텍	10,000,000	㈜블루비에스	3,000,000	이규환(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임용재(농경제학과 67)	300,000		
(주)농우바이오	10,000,000	㈜스마트나노	3,000,000	정슬기(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최인규(산림과학부 교수)	249,990		
임영외(농업교육과 7)	6,000,000	김국형(농생명공학부 교수)	3,000,000			김대우(NICEM)	180,000		
농업지원경제학전공 교수 일동	5,360,000	김도순(식물생산과학부 교수)	2,500,000			농업지원경제학전공 교수 일동	180,000		
㈜프로캘코리아	5,000,000	채영재(농산업교육과 97)	2,500,000			김동진	166,660		
농식품8기	5,000,000	㈜네오리젠 바이오텍	2,000,000			최진용(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5,000,000		
서울신문사	5,000,000	㈜스카이엔스	2,000,000			서인영(기획전략본부)	130,000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모금안내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2,428,849,455 원

기금출연 (2019. 09. 01. ~ 2020. 02. 29.)

출연 합계 : 118,937,455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심영근(농경제사회학부 명예교수)	30,000,000	하성기	5,000,000	윤철희(농생명공학부 교수)	800,00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00,000	유상열(농생명공학부 교수)	5,000,000	양대진(식물생산과학부 교수)	600,000
에스피씨(주)	19,140,000	류관희(명예교수)	4,000,000	정봉진(농학과 73)	500,00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16,597,455	김국형(농생명공학부 교수)	3,000,000	양윤선(농생대 식물병원)	500,000
		김도순(식물생산과학부 교수)	2,500,000	신승현(농생대 식물병원)	500,000
		Hong Sok(Brian) Kim(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00,000	한경석	400,000
		강규영	1,500,000	나승일	300,000
		정중훈	1,000,000	임용재	500,000
		우건석(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김동진	180,000
		나용준(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박준호	120,000
		이경준(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이규환(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정슬기(농생대 식물병원)	1,000,000		

매일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만원 X *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n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 02-880-8004)

[동문동정]

- ▶ **장해석** 동문(임학 73)은 2019년 12월 2일 호반호텔&리조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 **박종호** 동문(임학 81)은 2019년 12월 12일 산림청장으로 임명되었다.
- ▶ **이상기** 동문(월예 83)은 2019년 12월 30일 대림코퍼레이션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 **박태선** 동문(농공학 82)은 2020년 1월 7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 ▶ **김기태** 동문(농경제 87)은 2020년 1월 20일 청와대 신입 사회적경제 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 ▶ **진선필** 동문(임학 86)은 2020년 2월 11일 산림항공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 ▶ **최준석** 동문(임학 81)은 2020년 2월 20일 산림조합중앙회 신입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 ▶ **김상남** 동문(농교육 82)은 2020년 3월 6일 제7대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교수동정]

- ▶ **김영호 명예교수, 김기선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2019년 11월 5일 동오농촌재단이 수여하는 '2019 동오 농업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였다.
- ▶ **김관수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19년 12월 3일 농업경제학회 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 **김홍석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2019년 12월 9일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 ▶ **유상열 교수**(식품·동물생명공학부)는 2019년 12월 16일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하였다.
- ▶ **강동현 교수**(식품·동물생명공학부)는 2019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 ▶ **김진도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2020년 1월 한국농산교육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전략본부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물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작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연구센터 T.880-4686 F.873-2317
식물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동창회 소식]

▶ 2020 새해인사회



2020년 1월 7일 10시 반부터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70학번 주관의 새해인사회가 있었다. 2020년 새해인사회는 윤제환 대표의 사회와 서병문 동창회장의 신년사, 모교 이석하 학장의 축사 및 김종훈 70학번 대표의 기념사로 시작되었다. 기념사에 뒤이어 지난 12월 5일 창단한 동창회 동문 합창단의 축하공연, 동창회 원로들의 복떡 자르기 행사가 있었다. 이어서 각 학과 참석자들과 70학번 동기, 그리고 70학번 대표들의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공식적인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는 18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풍성하고 성대한 경자년 새 해를 열었다.

동창회는 즐겁고 알찬 2020년 새해인사회를 위해 애 쓴 70학번 대표들과 전체 동문들께 동문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0년은 우리 동문 모두 건강하고 즐겁고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 2020년 1학기 장학금 지급

서울대학교 상록문화재단은 2020년 2월 19일(수) 모교 75-1동 207호에서 2020년 제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상록문화재단은 서울대농생대동창회원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장학사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포상사업과 학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월 19일 상록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2020년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장학금은 장학생들의 계좌로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 이번 학기 상록문화재단 장학생은 총 49명(학부생, 대학원생 및 중·고등학생 포함)이며, 총 84,361,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전략본부 (T. 880-4538, sys4477@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